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느낀다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성인들과 같은 사람,
천사와 같은 착한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 처 모양의
사람들이 모두 물려와
하나같이 상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이 은혜로만
교제하기를 느낍니다.



내 자신이 매일같이
주님께 의해서 고침
받아가는 공사 중에
있음을 압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구상

이제사 비로소
두 이레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空)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한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意識)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6.19

발행호수 제19권 25호

예 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

의 저주 아래 있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선언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옥이 마땅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는 일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선언 받는다고 해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표방하는 신자 됨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빈번했고 예수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심성 자체가 삐딱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시절에 자기 민족의 신앙적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현대 교회에 교인으로 등장한다면 분명 신앙이 특심한 신자로 높이 받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주의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판단이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임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을뿐더

주일오전설교
마 23:13-15

천국 문을
닫음

러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화, 즉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천국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열성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는 교인을 얻기 위해 선교 활동에 왕성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 보내고자 열심도 있었지만, 정작 교인을 얻으면 오히려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 보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활동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 버리고 그들은 물론이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천국관은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처럼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현대 교회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식의 신앙생활을 천국에 해당되는 아주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신앙생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 는 것이 뭍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다르다' 는 생각이 굳어 있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식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의 반대파로 인식하는 신자들이 교회생활에 충실한 자신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밀접하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생각부터가 이미 예수님의 간섭과 은총에 접해 있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천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알다시피 이들은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한 천국 또한 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율법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은 신앙의 전부였고 천국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 생활입니다. 경건한 자가 되고 천국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해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일 뿐이고, 천국의 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악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율법이 중심이 된 그들의 최대의 문제는 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한 상태에서 죄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설사 죄를 본다고 해도 율법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죄의 해결 또한 간단했던 것입니다.

죄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그들의 행위가 비록 외적으로 완벽한 것으로 드러나고, 신실하며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율법에 대한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율법의 시각으로 풀어갈 때 팔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공로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그

정도에 따라 공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공로가 죄를 덮으면서 자칭 의롭고 신실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속자는 거추장스런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벽에 못 하나 박는 일에 국가에서 실력이 가장 좋은 목수를 파견해 주면서 그 목수의 실력을 믿고 잘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대속자는 인간의 실력을 무시하는 필요 없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 문제는 아주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도 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천한 사람은 목사가 말하는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제나 가벼운 마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천이 곧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를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신자가 행하는 종교적이고 선한 일들이 모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행위를 공로화하여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행위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변수를 안고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또한 불확실성을

띄고 있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천국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천국과는 멀어지는 길임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로 말씀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을 깨끗하게 해서 속의 더러움을 감추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자신들의 속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겉만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의 실천으로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문안 받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깨끗한 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참된 의미가 됩니다.

천국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모두 천국과 상관없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은 모든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것에는 인간의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을 훼방하고 막는 악한 것이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인을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공로로 인정되는 그러한 천국은 없습니다.

사 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는 권면을 합니다. 이 말에서 대개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하나, 즉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하나라는 관계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서로 연합하여 마음을 합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 관계를 지키는 것이 교회로써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관계는 어떤 일에 대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공감되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그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의 하나는 세상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인간의 연합을 필요로 한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는 교인을 향해서 연합을 강조하며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생명의 문제에 민감하기보다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없이 부흥하고 그것으로 자기 이름과 능력이 인정되는 일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인들의 연합과 단결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단결과 연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도 힘을 위한 인간의 연합이었습니다. 인간이 연합하여 힘을 모음으로써 흠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하여 힘을 모으자는 것은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를 깨뜨리심으로써 인간의 연합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자리

주일오후설교

엡 4:1-4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성령21강 5.29일 설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은 인간이 서로 연합하여 힘을 모아 번성함으로써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합하여 인간의 이름을 번성케 하는데 마음을 뒤편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합하지 말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인간의 연합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연합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관계가 인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합은 성령이 없이도 서로 동일한 목적과 이유 아래서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적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손을 잡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 됨을 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 됨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하나 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에는 강도가 달린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죽음을 자기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죽음을 죄의 당연한 결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 하라"고 비방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 구원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은 관심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방한 한 강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가능성도 힘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조롱과

비방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곧 나의 삶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됨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나 그 길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둘이지 하나 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고 나만 존재하는 것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너져야 주를 보게 되고 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주 예수님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분명 존재합니다. 이 존재성은 '나는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죽음을 자기 죄로 인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강도가 어떻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도에게 자신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강도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이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됨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사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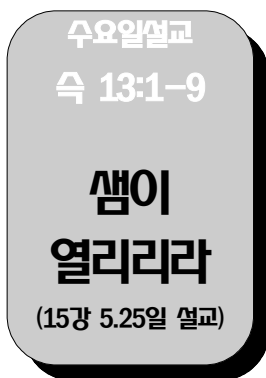
마땅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심판의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서는 증거되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처럼 자신의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면 언제든 원망과 불평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생존을 위한 보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 안에서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온유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나 공로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대하십니까? 12: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심령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된 심령에서 나오는 것은 찢은 바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고 말합니다. 여



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을 사모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간구가 있는 새롭게 된 심령의 사람입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자신이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찢은 자임을 보게 된 그 사람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말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더러운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 날은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가 말하는 샘은 열려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샘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같이 우리에게서 보게 되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샘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오심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자기 일을 구합니다. 모든 간구가 세상에서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찢은 자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같은 말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움을 씻어 주는 샘은 이미 말라버린 웅덩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덩이에서 샘이 솟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솟아나기를 고대하고, 성공과 부가 솟아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더러움을 씻어 주는 샘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되어진 은총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로만 예수를 부르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심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 교인들은 자신의 욕망에 버물려진 종교성을 믿

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몇 가지의 종교 행위만을 신앙의 근거로 삼은 채 오로지 자신을 위한 종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샘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죄와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율례고 법도였습니다. 정결 규례대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자기 집에 우물이 있는데, 남의 집의 우물에 가서 물을 떠먹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렘 2: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고 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생수의 근원으로 오신 분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가지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웅덩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만의 샘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는 샘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그 날이 되면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감추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으니 선지자로 행세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본받아서 자신을 자해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상처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신앙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

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팔에 난 상처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로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러한 상처가 전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참된 것이 드러남으로 자연히 거짓된 것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참된 것을 외면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합니다. 거짓된 것이 여전히 참된 것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가 확연히 드러날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이 핑계할 수 없고, 거짓된 것을 좇았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에 바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배우고 깨달으며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나는 성경에서 진리를 보고 배우며, 오직 그 길만을 가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변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고 해도, 참된 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8,9절을 보면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남는다고 합니다. 지옥 갈자가 삼분의 이, 천국 갈자가 삼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문자대로 세상 사람들 삼분의 이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천국 갈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은 삼분의 일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는다면 그 모습은 초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며 죄에 대해 애통해 하고 간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우리의 성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으로 애통해 하고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4장
교 독 : 16(시28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360장
성 경 : 마 23:13-15
말 씀 : 천국 문을 닫음(14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1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찬 송 :
기 도 :
찬 송 :
성 경 :
말 씀 :
기 도 :
찬 송 :
주기도문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말라기 강해(2강)

■ 교회소식 ■

1. 동부노회 대구 경북 구역 시찰회 연합에 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재건내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2. 피아노 구입을 위한 헌금은 다음주까지입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김종건 집사

다시 생각해 보는 예수님 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시고 지켜만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 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고달픈 삶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은총과 위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거나, 죄인된 우리에게 함께 해주기 위해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거나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뒹구는 우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하나님 이해를 180도 바꾸어 놓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높아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심의 사건의 의미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면서도 오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믿음생활은 자기 식으로 하려 하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다.

생각해 보라. 신자가 어떤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가? 말구유와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군주와 같은 존재로 인간의 잘못됨과 게으름을 질책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승배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독재자와 같은 분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 의미를 도외시키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가부장적인 하나님 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죄의식에 파묻혀서 진리로 인한 자유와 기쁨은 생각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신앙은 억압도 강요도 공포도 아니다. 신앙은 자유와 기쁨이며 사랑이고 용서며 은총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뭘 해도 용서 받는다며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서운 심판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묵과하시고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자기 백성으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무서운 심판주로 다가오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